96년 불교계 결산

주요종단 살림 점검

교육강화등 개혁틀 구축 혼신

조계종 총무부장 혜창스님

금년은 개혁종단 출범 둘째해로 승단과 재가, 집행부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완성을 위한 '토대만들기'에 혼신을 다한 해였다.

추목할만한 업무로는 중앙종무기관의 기능을 분야별로 현실성있게 배분, 업무분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승·재가 교육강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전개등 시대에 부응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기위해 앞장섰다.

특히 김대통령 군교회예배파문으로 빚어진 불교편향정책, 신학대학원설립추진, 불교관계법 개정 등 굵직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는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종단으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쳐 포교로 이어졌다고 자부한다.

개혁의 완성을 위하다보니 일을 산만하게 펼친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신도회결성이 지지부진하고있는 것도 안타까운일이다. 잘못된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아쉬움이 없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해본다.

동방불교대학 법인 인가 '성과'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를 보내면서 종단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우리 종단을 돌아보면 종립 동방불교대학 설립을 위한 법인 인가를 낸 것이다. 그 반면 한국불교 근대사의 산증인이셨던 서봉큰스님께서 열반하시어 불자들로 하여금 많은 안타까움을 남겼다.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의 일환으로 본종에서 개최한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 성공기원 10만관등 영산대법회 행사가 한일 공동개최와 더불어 전종도와 더불어 보람을 느꼈다.

또한 태고총림 선암사에 본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덕암큰스님께서 방장으로 추대되신 큰 경사가 있었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았다. 교계의 가장 큰 행사였던 한중일 불교문화교류대회에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치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새해에는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종단발전은 물론 불교계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다짐을 해본다.

한중일 유대 동북아평화 앞장

천태종 총무부장 도원스님

96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종단의 위상강화와 활발했던 국제교류가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5월15일 천태종의 발원지인 중국 천태산 국청사에서 개최됐던 한중일 천태대사 열반 1천4백주년 추모법회와 10월1일 일본 히예산에서 3국 천태종도들이 황금유대를 기반으로 천태대사의 말씀에 따라 학술문화연구 세계난민구제 동북아시아평화에 나서기로해 세계평화구현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종단적인 보람이라면 서울의 관문사를 비롯하여 울산 정광사 진주불교회관 충무 서광사 원주 청소년수련원 등 지방의 대형불사가 무엇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종도의 급증가와 12월 12일 천태불교문화연구원 개원으로 교리연구를 위한 발판과 천태사상에 입각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상당히 기쁘게 생각한다.

반면 아쉬움이라면 눈코뜰새없이 벌어지는 일들속에 파묻혀 지내다보니 제대로 사업을 추스르지 못한 것 같아 마음 한켠에 미련으로 남는다.

위덕대·대구문화회관 문열어

진각종 총무부장 진산정사

진각 50년(불기 2540)을 맞은 올해 본 종단은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종단으로서의 창종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용맹정진한 한해였다.

종단내적으로는 각해총인의 법통승수로 종단의 기틀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원정각 대종사님의 열반비탑제막과 사리봉함 불사는 종단체계와 신심을 다지는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단외적으로는 종조님의 재세시부터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종립위덕대학교가 지난 3월 개교하여 종단의 이미지 고양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구진각문화회관의 헌공으로 대구불교방송국의 개국에 기여, 대구·경북지역의 불교발전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축년(진기 51년)이면 본 종단이 창종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불법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이타자리를 실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과 제2창교적 도약을 위해 용맹정진하여 창종 50주년을 맞이하겠다.

"사찰환경 지키기 佛心 하나로"

다시 평가와 전망의 시점에 섰다. 김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파문으로 정치권과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한해를 열었다. 조계종 개혁호의 순조로운 운항, 천태종 진각종 등 여러 종단의 변모 움직임이 굵직한 흐름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올해는 '환경의 해'였다. 해인사 옆 골프장건설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50여 사찰이 '개발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교 교육 문화 신행면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어느때보다 분주한 한해로 평가된다.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96년 불교계를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 올해 불교계는 사찰환경훼손의 심각성에 놀라고 대책미련에 분주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문사부의 조사에 따르면, 해인사골프장 건립, 봉은사 아셈행사장 건립, 선암사앞 아파트 건립 등 정부와 지방단체의 무분별한 개발로 전국에서 50여개의 사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이에따라 11월22일 3천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본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찰환경보존위원회을 구성했습니다.

중앙신도회 창립 해넘겨

○… 올 한해 조계종은 개혁종단으로서 안정과 화합을 꾀하기 위해 제도개혁, 종무행정의 체계화, 승가교육체제 확립, 포교활성화에 주력했다는 평입니다. 특히 인사고과제 실시 의제법개정추진 분담금재조정 법률서비스실시 종무원포살법회 등은 집행부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들로 성급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종단차원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불교계를 분노케한 '1·21 김대통령 국군중앙교회 예배참석파문'에 불교계는 즉각 특별진상조사반을 구성, 종교편향정책 재발방지와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유감을 표방하고 비서실장이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으나 대통령부터 말단공무원까지 자행되고 있는 종교편향정책의 근본적인 시정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 한해가 마무리되는 12월 국회정각회가 불교관계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하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불교계 숙원사업인 불교관계법 개정은 그동안 조계종이 수차례 시도했으나 이번에 3당의원들에 의해 발의되면서 법개정을 밝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찰의 농지취득을 허용하는 농지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창립은 올해도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교단을 구성하는 4부대중 가운데 재가 2부중의 역할은 여전히 모색단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교구신도회를 기반으로 내년 초파일 이전에 창립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행단체의 활발한 연수도 올해를 특징짓는 움직임으로 평가할만 합니다. 충북괴산 다보수련원 개원을 기해 전국의 신행단체대표자 연수가 두차례 열렸고, 조계종 포교원에서도 직장·직능법회 대표자연수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불자들의 조직화의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계종을 제외한 여타종단들의 올 한해의 움직임은 '군소종단' 또는 '사회현실 참여에 미약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종단내부의 체계화와 대사회로의 약진을 보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지종 조동종 등 각 종단의 교양대설립, 동방·금강불교대 등 교양대의 정규대 승격움직임, 각 종단별 활발한 국제교류, 소비자보호위원회 가동, 2002년 월드컵 유치운동, 태고보우스님 유적지 발굴 및 복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한불교종단진흥회'(진흥회)의 발족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은 조계종에 대한 감정과 정치적 구도하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붕 서경보스님의 입적에 따른 근거없는 '법왕쟁탈전'은 또다시 불교계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 조계종이 '불교 청소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소년 분야는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 창립,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 창립 30주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 PC통신망인 동련연꽃 개설, 선재연구모임(회장 법명) 창립 등 청소년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수련회 등에서 보여준 운영미숙은 옥의 티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문학의 해'를 기념해 불교계에서 1억3천만원이라는 높은 고료의 불교문학현상공모가 있었습니다. 8개 부문에 걸쳐 모집했는데 이러한 공모가 연례화된다면 좋은 불교문학이 나올 수 있는 큰 가교역할을 하리라 여겨집니다.

올해 불교연극은 자못 활성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27법난을 소재로 한 '뜰앞에 잣나무'는 관람한 불자들에게는 평이 좋았지만 많은 관객을 끌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또 만해스님의 삶을 뮤지컬화한 '님의 침묵'과 원효스님의 구도의 삶을 마당극으로 엮은 '신새벽 길을 마다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5월 조계종 주관으로 열린 '불교문화세미나'는 미술 문학 음악 성보관리 등 불교문화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본 좋은 기회였습니다.

○… 지난 1월 교계에서는 최초로 전문미술관인 불일미술관이 사간동 법련사내에 개관됐습니다.

연극·전시등 문화포교 활발

○… 출판계의 전반적인 불황과 7월 개정된 저작권법 발효 등의 악재에도 불구, 불서출판은 평년작 이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불서전문출판사보다는 일반대형 출판사의 활발한 불서 출간에 힘입은 바 컸습니다. 교계 출판사들은 불황 속에서도 〈한국불교전서〉(동대출판부) 12권 완간,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전69권, 민족사) 〈한국불교사찰사전〉(불교시대사) 출간 등 굵직한 기초학술서를 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 불교학술은 종전의 인물과 역사중심의 연구·토론에서 대 사회회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모색이 주류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불교학의 변화와 미래지향적 연구변화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합니다. 다만 연구자체가 초보수준이어서 그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의 경우 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 석굴암 내부돔 균열, 경복궁내 불교문화재 반환요청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잇달았습니다. 내년이 '문화유산의 해'이니만큼 앞으로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국TV 아카데미 신설

○… 정부의 종교편향적인 교육개혁정책으로 불교계는 커다란 시련을 맞은 해였습니다.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움직임은 종교특성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불교계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더우기 일산동 초등학교에서 모교사의 수업시간 선교문제는 일선 교육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 중앙승가대학이 지난 12월 11일 교육부로부터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태고종이 동방불교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허가를 내 불교교육의 새 전기를 마련케 됐습니다.

○… 불교복지는 예년과 변함없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들로 일관돼 괄목할만한 성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계종 종단차원에서 우수 불교복지프로그램 선정 등의 다양한 시도는 향후 불교복지를 위해 고무적인 성과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28~29일 개최된 불교사회복지시설 단체 종사자 연수회와 12월22일 열린 불교사회복지대회는 종단 최초로 마련된 행사로 불교사회복지시설 단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종단차원의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 방송연예계는 연초부터 불교영화 '카루나' '유리' 등의 제작이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작품성이나 흥행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소재 영화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은행나무 침대' '귀천도애' '비욘드 랭군' 등과 같은 윤회와 전생 등 불교적 내용이 반영된 영화들이 선보였습니다.

○… 불교방송은 지난 3월 신임 조해형사장의 취임, 11월 불교대구방송 개국, 12월 불교청주방송 시험방송 돌입 등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전반적인 방송국 침체, 개발과 향상의 의지 저하, 인사행정의 불합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btn은 케이블TV업계의 불황속에서도 케이블설치 50% 할인 캠페인, 부산불교TV 문화센터 개원, 독도 위성수신시스템 설치, 사보발간, '퀴즈특급 이 뭐꼬' '김병조의 이야기쇼'의 미주지역 수출 등 활발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동국대와 손잡고 불교전문 방송통신교육시스템을 도입한 '동국TV 불교아카데미'를 신설, 불교의 저변확대에 새 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불교문화대제전의 미숙한 운영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KBS MBC SBS 등 3대 방송사의 불자들이 모인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의 출범도 주목할만 합니다.

부다피아 야후등록 '쾌거'

○… 인터넷에서 한국불교는 올해 드디어 세계 불자 네티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국의 '부다피아'가 '야후'에 등록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첨단정보 매체를 통한 한국불교의 포교역량이 매우 미약하다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주를 비롯한 유럽지역에서 포교활동으로 늘어난 현지인 불자들이 티벳·일본·중국불교관련 사이트를 연달아 개설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정리=정성운 기자

기자방담

취재 1부	이준엽차장 정성운기자 김원우기자 김중근기자 도필선기자
취재 2부	이경숙차장 한명우기자 김재경기자 이은자기자
취재 3부	임연태차장 오종욱기자 고영배기자
대구주재	이윤호기자
부산주재	천미희기자

◇96년은 각 종단을 비롯해 교육 문화 신행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해였다. 내년에는 21세기를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인골프장건설 반대 넉달만에 1백만명 서명

불교문학 1억 공모 '호응'… 전생 신드롬 '강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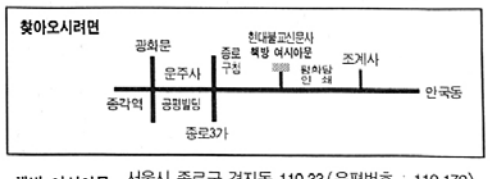
파라미타 청소년포교 '새 장'… 각종 연수 풍성

불자들의 자랑스런 도반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위해 가려 뽑은
베스트 불서 20선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연시!
부모님, 친지, 친구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 담긴
불서(佛書) 한 권은 어떻습니까?
책방 여시아문이
고객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먼저 앞장 서겠습니다

1. 붓다와 그 가르침
B.R 암베드카르 지음, 박희준·김기은 옮김 /신국판 398쪽 /값 6,000원 /민족사
2. 인간 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법륜 강의 /신국판 464쪽 /값 8,200원 /정토출판
3. 붓다-꺼지지 않는 등불
장 부슬리에 지음, 이종인 옮김 /4×6판 200쪽 /값 6,000원 /시공사
4. 한글 세대를 위한 불교
E. 콘즈 지음, 한형조 옮김 /신국판 양장본 310쪽 /값 8,000원 /세계사
5. 벽암록
안동림 역주 /4×6판 454쪽 /값 7,000원 /현암사
6. 깨달음의 거울
서산 지음, 법정 옮김 /신국판 230쪽 /값 5,000원 /불일출판사
7.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값 8,000원 /여시아문
8. 선 이야기
일지 저 /신국판 390쪽 /값 8,000원/ 불지사
9.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백봉 김기추 법어집 /신국판 변형 278쪽 /값 6,000원 /세계사
10. 죽창수필
운서주굉 지음, 연관 옮김 /신국판 양장본 594쪽 /값 15,000원 /불광
11. 기도
일타 지음 /신국판 238쪽 /값 5,000원 /효림
12. 책 안의 불교 책 밖의 불교
김호성 지음 /신국판 254쪽 /값 6,500원 /시공사
13. 네 발밑부터 살피라
정념 지음 /신국판 292쪽 /값 6,000원 /장승
14. 숨어사는 즐거움
허균 지음, 김원우 옮김 /4×6판 양장본 232쪽 /값 5,800원 /솔
15.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최순우 지음 /신국판 변형 460쪽 /값 10,000원 /학고재
16. 우리산 옛절
김장호·김승호 지음 /신국판 304쪽 /값 7,500원 / 대원정사
17. 절로 가는 마음
신영훈 지음 /신국판 308쪽 /값 6,000원 /책만드는집
18. 양치는 성자 (상·하)
백운 지음 /신국판 302쪽 /값 각 5,000원 /한강수
19. 에밀레종의 슬픔
정호승 지음 /값 8,500원 /한양
20. 인도로 간 또또
강석경 지음 /신국판 양장본 256쪽 /값 8,500원 /한양

찾아오시려면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편번호 : 110-170)
전화 : (02) 737-0695 (직통) / 팩스 : (02) 737-0696